

“동물원도 추울 땐 보일러 뚝니다”

우치동물원 최종숙씨가 전하는 '동물원 겨울나기'

동물원에 오면 일반 관람객들은 주로 동물들의 전시된 모습만 보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동물원 뒤편에는 동물들과 동물원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원 사람들은 동물들의 인간과 다른 '생로병사' 즉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걸 고스란히 함께 느끼고 겪어 나갑니다.

동물원 사람들인 사육사, 수의사 그리고 동물원을 꾸미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육사는 알다시피 동물들에게 주로 밥 주고 청소해주고 돌보아 주는 업무나 주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의사는 동물들이 태어나고, 병들고 새끼를 낳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늘 동물들과 함께하며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사는 건물을 짓고 고장 난 곳을 수리하고, 나무와 화초를 심어 동물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분들이 바로 관리하시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이 중 어느 누구라도 빠지면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편안하게 동물들을 감상하실 수 없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관람객은 아주 줄어들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우선 땀 먼저 하는 일은 좋은 짚단을 구해다가 잘 깔아서 10군데가 넘는 비 가림 초막 지붕을 새로 교체

해주는 작업입니다. 주로 바깥에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초식동물들과 물새류의 조류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털과 깃이 두터워 추위를 잘 이겨내지만 눈비에 털이 젖어버리면 추위에 대한 내성이 급격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추위에 약한 파충류와 작은 원숭이 그리고 기린과 하마 코끼리 사에서는 영상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보일러가 가동됩니다. 이때부터 보일러 담당하시는 분과 사육사들은 온종일 보일러에서 시선을 땄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밤새 고장이라도 생기면 정말로



코끼리의 야외 운동용 의상(?)으로 '부직포코트'라는 것이 있다. 주로 비닐하우스용 보온재로 많이 쓰이는 이 부직포가 덩치 큰 코끼리의 겨울코트로도 제격이다.

코끼리는 '부직포 코트'...원숭이들은 뽕뽕 뭉쳐 '비가림 초막 지붕' 교체 초식동물·조류 보호 동물원 식구들, 열대동물들 보살피라 초긴장

큰 일이 나기 때문이다.

작년에 저희 동물원에 온 코끼리 9마리는 저녁엔 좁지만 따뜻한 내실에서 온기가 느껴져서 쉬지만 낮에 한나절은 운동과 내실 청소를 위해서 바깥바람을 쏘여 주어야 합니다. 이때 동원되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부직포코트'라는 것입니다. 주로 비닐하우스용 보온재로 많이 쓰이는 이 부직포가 덩치 큰 코끼리의 겨울코트

이때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동료'라는 것이지요. 겨울 아침에 원숭이 사를 둘러보면 일본원숭이들이 서로 한 몸이 되어 꼭꼭 뭉쳐있는 걸 발견합니다. 원숭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리 동물은 서로 37℃나로 되어 이런 식으로 추위를 이겨냅니다. 그렇게 싸우던 것들이 서로 몸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겨울이 꼭 나쁜 계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 겨울에는 오해를 풀고픈 사람이 요구합니다. 결코 춥다고 함부로 나대서도 그렇다고 그냥 체념해서도 절대 안 되는 계절입니다. 안으로 끊임 없이 타올라야 하지만 바깥으로 미동도 아껴서 에너지의 소모를 막아야 합니다.

이때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동료'라는 것이지요. 겨울 아침에 원숭이 사를 둘러보면 일본원숭이들이 서로 한 몸이 되어 꼭꼭 뭉쳐있는 걸 발견합니다. 원숭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리 동물은 서로 37℃나로 되어 이런 식으로 추위를 이겨냅니다. 그렇게 싸우던 것들이 서로 몸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겨울이 꼭 나쁜 계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 겨울에는 오해를 풀고픈 사람이 요구합니다. 결코 춥다고 함부로 나대서도 그렇다고 그냥 체념해서도 절대 안 되는 계절입니다. 안으로 끊임 없이 타올라야 하지만 바깥으로 미동도 아껴서 에너지의 소모를 막아야 합니다.

길

한 속

눈꽃처럼 날리는 역새를 보며 새벽길을 걸을니다. 빛은 하늘보다 낮게 내려와 밧길에 등불을 켜고 풀처럼 자란 생각이 꿈틀거리며 내 뒤를 따라 옵니다.

새벽빛 먹고 자란 맑은 기도가 교회의 종소리 되어 울리고 빨갛게 세 번 흰 백일홍 나무는 돌아오지 않는 당신처럼 길 위에 홀로 서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려온 불빛에 하얀 소금발처럼 흔들리는 바람결 길, 저 위를 자락자락

걸어가 기도하심을 테지요. 기억이 역새를 꽃처럼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하얀 침대 위로 새벽 길 하나 만들어 밧고 가신 내 어머니 당신이 수없이 오갔을 낮고 분명한 그 길이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닌 거라며 으름 그 럽자 뒤로 묻어 놓고 왔습니다.

광주시민인터넷백일장
일부 최우수상 수상작
광주시 북구 신안동

추억의 한컷



45년전 무등경기장 광주무등경기장은 제46회 전국체전을 위해 준공된 운동장으로 1964년 착공돼 1965년 9월 30일 준공됐다. 당시 주경기장 3만명 야구장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었다. 사진은 1965년 무등경기장 일대 전경.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

클릭! 맛집



찬바람 솔솔... 닭곰탕 대령이오!

머느리도 모를 비법으로 폭 고아 어머니 손 맛 그대로

■광주 치평동 '동대문담한마리'

고기가 귀했던 시절, 닭 한 마리 넣고 폭 삶아 온 가족이 머리 맛대고 먹던 닭곰탕. 찬바람 부니, 고소한 냄새 풍기며 솥단지 가득 끓어오르던 닭곰탕 국물이 간절해진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33-10번지 동대문담한마리(업주 박성찬)는 싸고 맛있는 닭곰탕집. 주인장이 동대문 시장 일대의 닭곰탕 집에서 수개월 동안 현장실습 끝에 찾은 비법의 국물맛이 그만이다.

닭은 일단 냉동이 되면 그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닭만을 사용한다. 싱싱한 닭은 한소끔 끓여 내 기름과 비릿한 냄새를 제거했다.

육수는 기름이 적은 닭발과 '머느리도 모를' 비법 약재를 넣어 5시간 동안 고아서 만든다. 삶아서 기름을 속 빼내 콜레스테롤 부담이 전혀 없다.

특이하게도 손님상에는 양념받비에 담아서 낸다. 얼 정도가 빠른 양념받비에서 순식간에 끓여내야 구

수한 맛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념받비가 커 국물은 넘칠 정도로 많고, 고기는 3명이 나눠 먹으면 적당하다. 육수를 끓이면서 기름기를 빼서 국물과 고기가 무척 담백하고, 푸석푸석하지도 않다.

소스는 설탕, 식초 등을 곁들여 만든 간장과 고춧가루, 마늘 등 10여 가지의 재료를 넣고 다진 양념을 함께 섞어 만든다. 여기에 고기를 찍어먹으면 짜지도, 달지도, 시지도 않은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귀한 손님을 모신다면, 전복과 낙지 등을 추가로 닭육수에 넣을 수 있다.

고기를 다 먹으면 목은지나 물김치를 국물에 부어 먹어도 좋다. 적당히 배가 부를 때쯤, 칼국수 사리를 넣어 먹으면 허리띠가 저절로 풀릴 지경. 닭한마리 1만9천원. 반마리 추가 1만원. 문의 062-374-1004.

야채를 듬뿍 넣고, 매운 고추장에 차지게 볶아 먹는 닭갈비는 술안주로 좋다. 닭갈비 8천원.

/글·사진=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닭갈비>

■찾아가는 길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140, 5210,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1구)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지만 골라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8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590평 건물4,500평(매가 210억)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590평 건물 750평(매가 98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용사 12억
• 건물 보증금 29억 월세 6,000만원 (매가 110억)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실,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1,000평(임무용지)-매가 750만원
• 250평(유용기능)-매가 1,200만원
• 500평(임무용지)-매가 1,200만원
• 135평(유용기능)-매가 1,000만원

▶기타용도
• (농장) 동산동 약 2만2천평 평당 10만원
• (주거지역) 정동동 2,300평 평당 45만원 (요양원 등 계획)

▶상가(대매)상무지구, 상무역세권
• 상가 150평(9층) 매가 450만원 개발가능
•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 계획
• 세정 아울렛주변 역세권 상가 있음 대형의류매장가능 전화상담 환영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찾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6, H.011-801-5354

주유소부지 급매매
위치 : 해남군 강진군 경계 (상전면, 국도변, 최고화력조건)
대지 1450평, 도로경유 1250평 허가유
주유소 허가 및 건축허가 특

GS와 계약
(건축비 3억 보조 및 주유기 무료제공계약)
해남 원도 진도 출발 상행선
광주도약 80km
토목작업완료

강진해남경계 아치암 지점 매매가 3억
(금호동 서광주 역 건너, 2소출도로변)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대지■
약 2850㎡, 가격 협의중

• 근린시설, APT 신축, 병원, 일반상가, 기타 중심상업시설 가능
• 최고의 교통접근 (광주서행 접근성 5.18 권역변)
• 광주 최고의 상권
• 최고의 입지 상업지역
• 현재 10층 신축건물 앞

한길부동산중개
광주 서구 칠동 1301-1(상무지구 5.18 권역) 앞
상담전화 ☎ 011-647-4114

주유소 매 매

북구 중흥동 1.250㎡
매매가 12억(임대가)
대로변, 위치좋은, 공시지가이하
현 임대 수입 : 보증금 21,000만, 월 800만

- 전원주택 매 매 -
화순군 춘향면 용두리 69번지
대지 1,270㎡ 매매가 4,500만

☎ 상담전화 ☎ 011-647-4114

경매전문회사
호남경매컨설팅

무료 상담 ☎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의 낙찰가 제시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잔금 대출알선(낙찰가의 50%~80%)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한일지도판매(주)
한일지도 판매(주) ☎ 062)524-3059, 062)529-1409
(광주시 북구 운암동 477-2 운암주유소 뒤)

관리지역 세분화 신판지도출시!!

이번에 새로나온책은 정부에서 시행한 시·군·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수록

특보 2010년 최신 광주광역시 지번도책 판매 중!

이번에 새로나온 신판 지도책은

◎ 최신 광주, 장성, 담양, 곡성, 화순, 나주, 함평 지번도책 ◎

(광주광역시) 신판 상권 1/6000 한일지도판매(주) ☎062) 524-3059 ☎062) 529-1409	(목포·무안·영암) 신판 합본 1/5000 한일지도판매(주) ☎062) 524-3059 ☎062) 529-1409	최신 광주지번도 1/9000 한일지도판매(주) ☎062) 524-3059 ☎062) 529-1409
---	--	---

목포·무안·영암·신안군 4개 지역을 1권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되어나와 판매 중입니다.

상담 문의 ☎ 062) 524-3059 ☎ 062) 529-1409